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9. No. 11, pp. 263-269, 2018

ISSN 2233-4890
https://doi.org/10.15207/JKCS.2018.9.11.263

건재고택 가랍집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김석희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공학박사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Genjaegotaek Galabjib

Suk-Hee Kim
Doctor of Engineering, Modern Cultural Properties Department,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요 약 아산외암마을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부터 형성된 마을이다. 예안이씨가 중심이 된 민속마을이며 국가민속문화재 제 236호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현재 지역별 특성을 가지고 있는 초가의 원형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그나마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는 건재고택 가랍집의 건축적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건재고택은 외암마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집 구성은 문간채, 사랑채, 안채, 사당으로 되어 있다. 안채는 'ㄱ'자형 집으로, 마주하여 튼'ㅁ'자형을 이루고 있다. 사랑채 앞의 넓은 마당은 기암괴석과 백년된 소나무, 그리고 오래된 석탑 등과 연못, 정자 등이 있다. 대문 밖 서편에 ㅡ자형 초가집이 있다. 건재고택 가랍집은 하인집으로 ㄱ자형이다. 평면은 부엌 - 방 - 대청 - 방으로 구성된 초가집으로 그 원형이 잘 남아있었다. 건재고택 가랍집이 외암마을의 모든 초가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향후 외암마을 초가의 유형별 분석 등을 통하여 이 지역의 초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때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초가, 건재고택, 이엉지붕, 민속마을, 가랍집

Abstract Asan Oeam village is a town that has been formed since about 500 years ago. It is a folk village centered on Yean Lee and designated as National Folk Cultural Property No. 236. However, the original shape of the thatch, which has regional characteristics, is disappearing. Therefore, I want to study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house which is well preserved in the original shape. The Genjaegotaek is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Oeam village. The composition of the house consists of a Munganchae, Salangchae, Anchae, Sadang. The Anchae is an 'ㄱ' shaped house, and it is shaped like a 'ㅁ' which is opened by facing. The wide yard in front of the Salangchae is made of strangely shaped rocks, a hundred-year-old pine, old pagodas, ponds, pavilion. Outside the main gate, there is an 'ㅡ' shape thatch on the west. The Galabjib of Geonjaegotaek is a servant house, and the shape is a ㄱ type. The plane remained well in its original shape, thatch is consisting of a kitchen–room–daecheong maru–room. A Galabjib of Geonjaegotaek can not represent all the thatch of a Oeam village.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basic data when the study by the thatch in this area is conduct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type.

Key Words : Thatched House, Genjaegotaek, Straw-Thatched Roof, Folk Village, Galabjib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민가(folk architecture)는 민중의 대표적인 건축으로서 그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반영하여 생겨난 주거문화의 총합체이다[1]. 이들 민가건축은 집단거주를 하기 위하여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는데 이들은 초창기에 주로 집성촌이나 씨족부락, 동족부락의 형태로 시작하여

*Corresponding Author : Suk-Hee Kim (ksh0707@korea.kr)
Received August 8, 2018 Revised October 26, 2018
Accepted November 20, 2018 Published November 28, 2018

발전하였다. 이들 민가는 주로 한반도에서 농촌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서민들의 주거 건축으로 시작되어 20세기 중반까지 우리나라 전국에 분포되어 이어져 왔다. 그러다가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되고 새마을운동의 영향과 생활의 불편으로 인하여 민가가 점차 사라지게 되었으며, 현재는 민속마을 등에서 볼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이들 전통 민가를 중심으로 한 전통마을로 아산외암마을, 안동하회마을 등 7개 마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민속마을로 지정되어 정부의 지원 아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지원받고 있다[2].

충청남도 아산 외암마을은 설화산 남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언제 형성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추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문헌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시기는 예안이씨 입향조 이후부터로 알려져 있다.

아산외암마을에 있는 여러 고택 중에서 건재고택이 있는데 마을 중심부에 자리 잡은 이 집의 건물배치는 설화산을 주산으로 하여 서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사랑채 앞은 넓은 마당으로 가묘가 있고 우측에는 후원으로 나무 광, 연못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돌담밖에는 하인이 거주하던 가랍집이 초가로 되어 있다.

이 가랍집은 양반가에 딸린 하인집이나 외거 노비집, 하배집, 호지집 등 지역마다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3~8]. 건재고택의 가랍집에 관한 조사는 그동안 마을주민과 관계 문헌 자료 등을 토대로 이루어져 많은 부분에서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암마을의 민가가 그동안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많은 변형이 이루어졌으나 이 가랍집은 조사결과 위치나 형태 등 본래의 초가지붕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내부구조 또한 큰 변형이 없어 외암마을 초가의 원형으로 추정이 가능한 집이었다.

다만 세월이 흐르면서 초가지붕의 경우 연죽을 사용하나 철사를 이용하는 등 일부 기법의 변형만이 있었을 따름이다. 이는 원형을 완전히 훼손된 것이 아니며 언제든 원형을 회복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가랍집은 원래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산외암마을의 고택 중에서 초가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건재고택의 가랍집을 통하여 아산외암마을 민가의 건축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건축적 특성은 가랍집의 평면, 구조를 중심으로 파악하였으며 특히 가랍집이 초가지붕의 원형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여 지붕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는 민속마을에서 초가의 원형은 지붕의 재료 등으로 인하여 지극히 어려운 점이 있어 가랍집의 지붕 특성을 중점적으로 파악한다면 추후 민속마을의 초가집 정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2 조사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산외암마을에 있는 건재고택의 가랍집을 대상으로 가랍집의 건축적 특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가랍집의 지붕형태가 초가인 점을 감안하여 지붕에 관하여 건축적 내용과 구조적 내용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조사방법은 가랍집과 외암마을의 특징, 그리고 건재고택 및 가랍집에 대하여 문헌 등을 통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였고 마을주민 및 전문가, 관련 기술자, 초가장 등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외에 아산 외암마을과 관련된 도면, 항공사진, 문헌 등의 자료조사와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8년 2월부터 5월까지 진행하였다.

2. 아산외암마을과 건재고택 가랍집

2.1 아산 외암마을

아산외암마을은 설화산 남서쪽에 자리잡고 있는데 언제 형성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단지 문헌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예안이씨 입향조 이후라고 한다.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약 500년 전부터 강씨와 목씨 등이 정착하였다고 전하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족보의 기록에 의하면 예안이씨가 평택진씨를 사위로 입향하였다는 기록을 통하여 예안이씨의 집성촌으로 변모하기 전에 평택진씨가 외암마을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간(李柬)의 외암기(巍巖記)에 의하면 외암마을은 이간의 호 “외암”에서 마을명이 유래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외암”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으며, 외암마을에 입향한 이간이 외암마을의 이름에서 호를 딴 것임을 알 수 있다. 외암마을은 조선후기 예안이씨가 입향하면서 집성촌으로서 반촌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으며, 영암댁, 참판댁, 감찰댁, 참봉댁 등 반가와 그 주변에 초가로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이 마을을 구성하는 특징 중의 하나는 풍수에서 말하는 염승이라는 방법을 적용한 마을 내 인공수로이다. 주산인 설화산의 화의 기운을 막기 위하

여 물을 끌어 들인 것은 자연에 순응하고 적응해 나가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일 것이다.

아산 외암마을은 1978년 충청남도 민속보존마을로 선정되었고, 1982년 3월 민속관광마을로 개칭되었으며, 1988년 8월 전통건조물 보전법에 의하여 국가지정 전통건조물보존지구로 변경되었다. 그러다가 2000년 1월 국가민속문화재 제236호로 지정되어 보존관리 되고 있다. 아산 외암마을 내 참판댁은 1984년, 건재고택은 1998년에 먼저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9-11].

Fig. 1. Layout of Asan OeamVillage
(참고 : 문화재청 GIS 지형도면 고시 배치도 참조)

2.2 아산 외암마을 주거시설 변화

1990년 아산 외암마을 가옥은 총 65동 이었으며, 지정 직후 2001년에는 3동이 증가한 68동이었다. 2001년 8월에 조사에서는 전통한옥으로 사랑채, 안채, 문간채 등 반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집이 5채였으며, 문간채 없이 안채와 사랑채로 구성된 집이 5채, 사랑채 없이 안채가 있고 문간채가 사랑채 역할을 하는 집이 24동이 있었다. 1990년과 2001년, 2018년 현재의 주거시설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목조 전통 와가는 35동에서 38동으로, 목조 초가는 12동에서 52동으로 [1]기타 주거는 46동에서 14동으로 변화하였다. 2018년 현재 전통 와가 57동, 초가 151동, 기타 28동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새마을 운동 당시 슬레이트집을 구조에 따라 초가와 와가 등 전통방식으로 정비를 해온 탓으로 보인다. 특히 초가의 환원이 두드러진다.

전통와가는 변화의 정도가 적은 반면 전통 초가는 변화의 폭이 심한 편인데 특이한 점은 기타 시설의 변화의 폭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기타시설은 전통형태가 아니라 농기구창고, 보일러실 등 실생활에 필요한 시설물이다. 이는 전통가옥이 생활편의시설의 필요에 의해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13].

외암마을의 초가는 1970년대 초반 새마을운동에 의해 초가지붕이 슬레이트지붕으로 변화하면서 대부분의 초가가 훼손되었다. 이후 1978년 충청남도 지정 민속마을, 2000년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전통경관 보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0년 지정 당시 14동이었던 초가지붕이 현재 151동으로 거의 대부분 원형으로 환원되었다. 외암마을 주거시설 변천과정 조사 결과 이 마을은 반촌이 입향하여 자리를 잡았으나 시대가 변하면서 서민마을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1. Change of Housing in Oeam Village[12]

Division	1990 year	2001 year	2018 year
Tile	35	38	57
Thatch	12	52	151
Et cetera	46	14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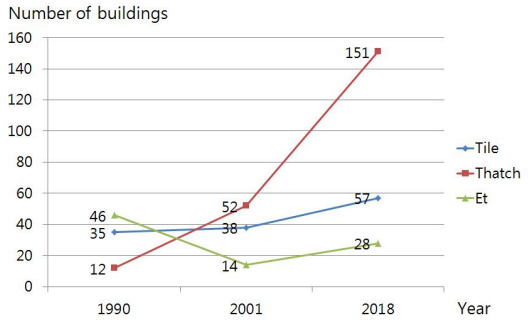

Fig. 2. Change Trend of Housing in Oeam Village

2.3 건재고택과 가랍집

아산외암마을 건재고택은 현 소유자인 이준경의 증조부 건재(建齋) 이상익(李相翼:1848~1897)이 초창하였다고 한다. 이상익은 영암군수(靈岩郡守)를 지냈기 때문에 택호(宅號)를 영암댁(靈岩宅)이라고도 하며, 이곳에서 조선시대 후기의 학자 외암(巍巖) 이간(李柬:1677~1727)이 태어났다. 배치는 서북향이며 몸채는 안채, 문간채, 사랑채로 이루어진다. 오른쪽에 나무 광이 있고 왼쪽에는 곳간이 있다. 안채는 ㄱ자형이고 방, 대청, 부엌이 있으며, 문간채는 일자(-)형이다. 사랑채는 ㄱ자형으로 방과 대청이 있고, 사랑채 앞마당은 정원으로 꾸며져 있다. 정원

1) 목조양와, 목조 슬레이트, 목조함석, 조적조 양와, 조적조 슬레이트

Fig. 3. Layout of Genjae

에는 정자가 2동 있다[14]. 이밖에 집 내부에는 가묘, 후원, 연못 등이 있으며 돌담 밖에는 하인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랑채에 이간(1677~1727)의 교지가 보관되어 있어 입향조의 근거자료가 되고 있다.

마을 중심부에 자리 잡은 이 집의 건물배치는 설화산을 주산으로 하여 서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설화산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 명당수를 이루고 있다. 이 물을 유입하여 마을 대부분 집에도 계류를 조성하고 수경을 이루었다. 이는 조경과 화재 예방을 대비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다.

고택의 구성은 문간채, 사랑채, 안채를 주축으로 우측에는 나무 광을, 좌측에는 곳간을 우측 맨 위쪽에는 가묘를 배치하였으며, 사랑채 앞은 넓은 마당으로 가묘가 있고 우측에는 후원으로 나무 광, 연못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돌담밖에는 하인이 거주하던 가랍집이 초가로 되어 있다.

안채는 ㄱ자집으로 사랑채와 어울려 열림 ㅁ자형 구조를 하고 있다. 사랑채에는 많은 주련과 편액이 설치되어 있다. 사랑채 앞마당은 조선 후기 절충식 정원으로 수림, 계류, 괴석 등으로 구성되어 전통정원에 외래정원이 가미된 절충형식을 이루고 있다.

건재고택 북쪽에 위치한 가랍집은 전면에 퇴칸이 없는 평면으로 중부 평면으로 중부지방의 전형적인 'ㄱ'자 형태의 초가집이다. 전언(외암마을 이장 신동주, 주민 이준서)의하면 약 130년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건재고택의 행랑채의 일부로 건재고택의 잡일을 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살던 집이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건립당시부터 가랍집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집 없는 사람들이 이주해오고 건재고택에서 일을 하면서 가랍집으로 자리매김한 듯하다. 이외에도 건재고택 주변에는 구 최창근 가옥, 구 성주화 가옥 등이 건재고택 일을 도와주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던 집으로 현재까지 남아있다. 다만 이들의 집들은 주인들이 바뀌면서 살림집으로 많은 변형을 가져왔으나 가랍집은 건재고택 소유로 고스란히 남아 변형이 거의 없이 건립당시의 원형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건재고택 가랍집의 건축적 특성

3.1 가랍집 원형조사

건재고택의 가랍집이 원형인지에 대한 조사는 마을주민 전언과 관계전문가의 자문(문화재 위원, 교수, 실측설계사, 보수공사 기술자 등) 을 받아 초가의 구조 형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1954년, 1976년, 1985년, 1998년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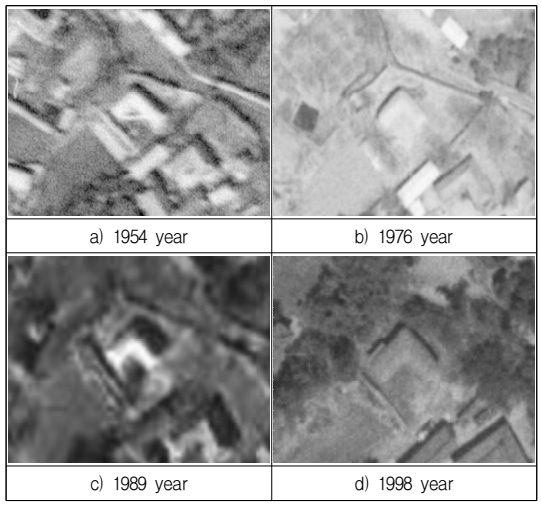

Fig. 4. Analysis of Aerial Photograph[12]

조사결과 외암마을의 초가는 생활환경이 변화에 따라 생활불편의 해소차원에서 많은 변형이 이루어졌다. 그에 비하여 가랍집은 위치나 형태 등 분석 결과 초가지붕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내부구조 또한 큰 변형이 없어 외암마을 초가의 원형으로 추정하였다. 외암마을 초가장으로 지정된 신동주님의 전언에 의하면 2000년 이후 해체 등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건재고택 가랍집은 1983년 이후 배면의 광을 온돌방으로 통합하고 보일러실 및 가설창고 확장 등 평면과 배면에 다소 변화가 있었으나 가옥의 주요 구조인 목구조와 기단, 초석, 지붕 등은 변화 없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세월이 흐르면서 초가지붕의 경우 연죽을 사용하나 철사를 이용하는 등 일부 기법의 변형만이 있었을 따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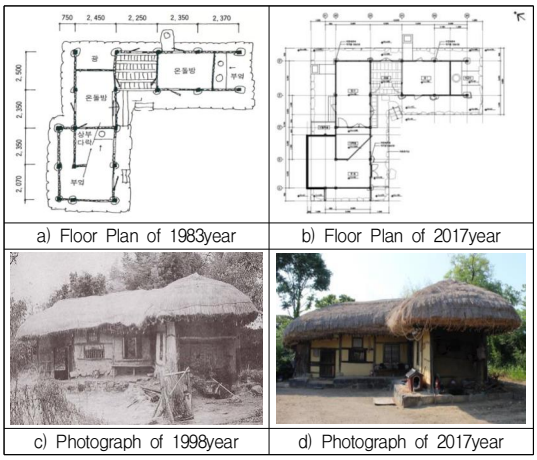

Fig. 5. Plane and Photo of Galabjib[12,15,16]

3.2 가랍집의 건축적 특징

외암마을의 살림집은 대체로 남서향을 하고 있으며, 가랍집의 배치 또한 건재고택의 북서쪽에 위치하면서 남서향의 좌향을 하고 있다.

아산외암마을의 살림집은 일반적으로 곱은자집과 一자 집으로 구분되는데 곱은자집의 평면은 가형(부엌-방-대청-방), 나형(부엌-방-방), 다형(부엌-방-대청-방-방)의 형태로 구분되며 가랍집은 그중 가형에 해당되는 평면구조를 가지고 있다[15].

평면은 대청이 있는 방향을 몸채, 부엌이 있는 방향을 날개채로 하였을 때 몸채의 평면 기둥 간격은 2,450mm /2,250mm/ 2,320mm /2,320mm이고 날개채의 경우는 2,070mm /2,320mm /2,320mm /2,480mm로 되어 있어 대략적으로 도리 칸은 7.5척, 보 칸은 8척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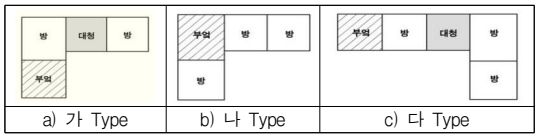

Fig. 6. Floor Plan Type of Bent House in Oeam Vill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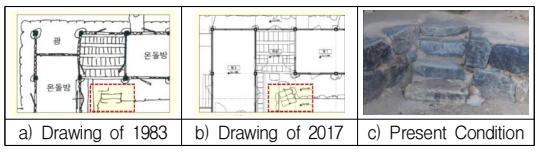

Fig. 7. Transform of Stairs

기단의 경우는 자연지형에 따라 외벌대와 두벌대의 자연석 허튼층쌓기를 하였으며, 기단의 높이는 230~545mm 기단석길이는 약 300~800mm정도이며 1983년과 2017년 자료를 조사한 결과 대청 전면 자연석 계단의 위치변경을 확인하였다.

초석은 지반의 습기를 피하기 위하여 지형에 따라 약 110~285mm의 자연석 덤벙주초를 설치하였다. 기둥은 각기둥이며, 덤벙주초 초석의 높이가 다양하여 그 높이를 기둥 높이로 조절하였으며 기둥 상부 결구는 장여 및 보 받침 없이 기둥, 보, 도리가 결구되어 있다. 기둥은 150×150mm, 길이는 평균 2,135mm로 조사되었으며 특이한 점은 부엌의 기둥이 1,950mm로 주심도리 높이가 방보다 낮게 설치되었음에도 방과 부엌이 같은 지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반 와가에서는 도리 높이가 다를 경우 지붕도 단을 지거나 눈썹지붕을 설치하는 등 별도의 지붕이 형성되는데 비하여 초가의 경우 재료의 유연성 때문에 높이를 조정하여 하나의 지붕으로 하였다는 것이 가랍집 초가의 특징이다.

주심도리는 135×150mm이며, 부엌 부분 주심도리를 단을 지게 설치하였고, 사선으로 설치하였으며 아궁이 부분은 보 형태의 도리를 사용하였다. 보의 치수는 135×150mm로 상부로 굽은 자연스러운 곡재가 그림 9와 같이 사용되었다[1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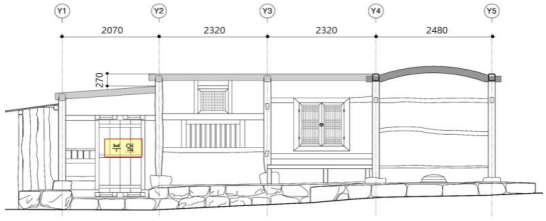

Fig. 8. Dori Drawing (Right side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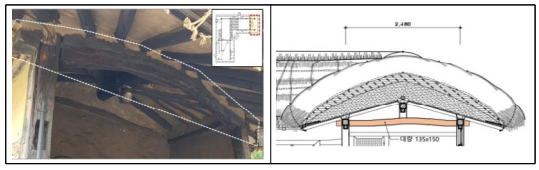

Fig. 9. Dori of Beam Direction in the Oven Part

가랍집은 3량가로 대청부분에는 폭 75mm 장여가 보강되어 설치되어 있으며 외암마을 약 75%의 초가가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인방은 대부분 치수가 75×100mm~75×120mm로 설치되어 있으나 90×135mm의 치수를 가진 경우도 있다. 그 이상의 인방 치수는 대부분 와가 살림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랍집의 인방은 자연스러운 곡재를 사용하였으며 치수는 약 75×120mm 정도이다. 초가의 연목은 ¢80mm로 일반적 초가의 연목보다 작은 것이 사용되었으며 말구와 몸통이 일정한 연목이 사용되었다.

와가보다는 초가가 지붕하중이 적으므로 연목간격을 380~400mm로 넓게 설치되어 있으며, 대체적으로 굽은재가 아닌 곧은 형태의 연목을 사용하였다. 연목 내밀기는 930mm 기단 내밀기는 140mm로 약 500mm 정도는 초가이엉을 덧내어 지붕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기스락을 대지 않고 초가이엉을 겹겹이 내밀어 지붕을 기단까지 내민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가랍집의 건축적 특징의 하나는 말굽연 구성이다. 우미량 상부에 추녀를 결구한 후 초장부터 겹겹이 연목을 쌓아 말굽연을 구성하였으며 이는 연목의 물매가 낮을 경우 알매흙의 두께가 두꺼워져 지붕 하중이 증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연목을 겹겹이 쌓아 덧서까래 역할을 하도록 하여 지붕하중이 경감되도록 설치하였다.

초가의 지역적 특색은 초가지붕의 형태에 의하여 많이 좌우되며 초가지붕의 물매가 초가의 특성을 좌우한다고 할 것이다. 가랍집의 경우 초가이엉의 두께는 465~550mm, 고사새끼는 겪자엮기 방식으로 간격은 400~500mm로 초가이엉을 겹겹이 쌓아 내밀어 기단 내밀기까지 지붕을 확보하였다.

Fig. 10. 3D and Present Conditional of the Galabjib Malgub-y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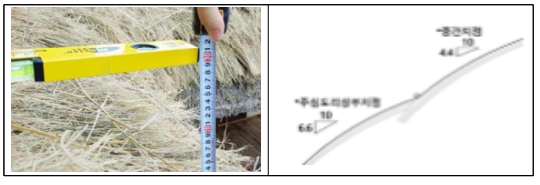

Fig. 11. Roof Slope Survey Thatch

초가이엉 물매는 초가이엉 잇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외암마을 양재원 가옥의 초가를 조사하였다. 초가이엉 물매는 주심도리 상부지점에서는 6.6/10, 중간지점에서는 4.4/10으로 그림 11과 같이 조사되었다.

고사새끼는 겉고살과 속고살로 엮으며 격자로 엮어 나갔으며 간격은 살림집마다 다르지만 보통 500~700 mm 간격으로 설치되었다. 바람의 영향으로 이엉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마 끝 용마루 회첨골은 고사새끼를 2겹으로 하여 시공하는데 이는 타지방과 다른 외암마을의 초가이엉 잇기 기법이다. 연목 말구에 연죽을 설치하여 고사새끼를 고정하였다. 특이한 점은 추녀와 평고대 위에 발을 설치하고 암키와를 놓아 보강하였다.

군새는 볏짚이나 이엉을 이용하여 초가지붕의 물매와 수평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조사한 바로는 군새두께가 약 200mm였으나 초가장의 인터뷰 결과 원래는 약 250~300mm 정도였다고 한다.

외암마을 초가지붕 시공순서는 산자엮기 → 초가 알매흙치기 → 초가지붕기스락설치 → 적심(없음)설치 → 처마마름이기 → 군새깔기 → 초가이엉잇기 → 용마름엮기 → 고사새끼엮기 → 연죽설치로 이루짐을 확인하였다[12].

Fig. 12. Present Conditional of Straw-rope and Angle Rafter Maguri

4. 결론

가랍집은 아산외암마을 건재고택이 조선후기 건립되면서 이 고택의 하인집으로 건립된 초가다. 특히 이 집은 아산외암마을 초가의 원형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붕구조는 외암마을 초가의 원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아산외암마을 건재고택 가랍집의 건축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 건재고택의 가랍집은 마을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

며 주변 지형과 건물의 관계를 고려하여 남서향 배치를 하고 있으며 곱은자집(ㄱ자형)으로 부엌-방-대청-방의 평면구성을 하고 있다.

○ 기단부는 지형의 높낮이에 맞추어 두벌대 및 외벌대 자연석 기단 허튼층쌓기를 하였으며 초석은 자연석 덤벙주초로 기둥의 높이로 집의 높이를 조절하였다.

○ 가구형태는 조선후기의 초가와 같이 3량가를 이루고 있으며 각각의 기둥 치수는 150mm 이하, 인방재 또한 폭 75mm 이하의 자연스러운 곡재를 사용하였고 연목은 ¢80mm 이하로 와가에 비하여 규격이 작은 것을 사용하였다. 특히 연목을 겹겹이 쌓아 구성된 말굽연이 이 초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부엌의 주심도리가 방보다 낮게 설치되었음에도 와가와 같이 지붕에 단을 주거나 눈썹지붕을 두지 않고 하나의 지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볏짚이나 군새 등으로 지붕 높이를 정할 수 있는 초가집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목구조의 높이차를 보정하기 위하여 지붕두께가 두꺼워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며 와가의 경우에는 이런 보정이 불가능한 반면 초가의 경우 사용된 것으로 보여 초가집 재료의 유연성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아산 건재고택 가랍집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초가의 원형과 건축적 특징을 찾고자 하였는데 지역적으로 아산외암마을의 가랍집으로 한정한 연구의 한계가 있다. 단지 민속마을로 지정된 7개 마을의 초가를 연구한 선행연구의 내용도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추후 다른 지역에 있는 같은 유형의 집과 비교하면서 특징을 도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Rapoport, A. (2008). *House Form and Culture*. Taerim.

[2] Y. S. Kim, S. K. Kim, H. K. Nam. (2017) An Study on the Way of Supply the Rice Straws that Covered with the Houses in Folk Village. *Journal of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9(6) 95-103.

[3] Goseong-gun. (2001, 2012). *Goseong Wanggok Folk Village Comprehensive Maintenance Research Report*. Goseong-gun.

[4] Jeju Lsland. (2012). *Seong-eub Folk Village Comprehensive Maintenance Research Report*. Jeju Lsland.

[5] Andong-si. (2012). *Andong Hahoe Village Comprehensive Maintenance Research Report*. Andong-si.

[6] Gyeongju-si. (2012). *Gyeongju Yangdong Village Comprehensive Maintenance Research Report*. Gyeongju-si.

[7] Sungju-gun. (2013). *Sungju Hangae Village Comprehensive Maintenance Research Report*. Sungju-gun.

[8] Yeongju-gun. (2015). *Yeongju Mumseom Village Comprehensive Maintenance Research Report*. Yeong-gun.

[9] *Official Government Gazette No. 13798* (Official Designation of Asan Geonjaegotaek/1998)

[10] *Official Government Gazette No. 14400* (Official Designation of Asan Oeam village/2000)

[11] Office of Cultural Properties. (1998). *Important Folklore Data Survey Report, Asan Geonjaegotaek*.. Asan-si

[12] Asan-si. (2012, 2017). *Asan Oeam Village Comprehensive Maintenance Research Report*. Asan-si.

[13] Asan-si. (2002). *Asan Oeam Village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Asan-si.

[14] Asan-si. (2012). *Korean traditional houses Asan Oeam Village Garden and intangible heritage*. Asan-si.

[15] T. M. Moon. (2010). *A study on the wooden structure proportion system of traditional houses in Oeam folk village*. Master dissertation. Mokwon University, Daejeon. 19

[16] CHA. *Repair CD Drawing of Geonjaegotaek*.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김 석 희(Kim, Suk-Hee) [정회원]

・1995년 2월 :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공학사)
・2007년 8월 : 목원대학교 (공학석사)
・2016년 8월 : 목원대학교 건축학과(공학박사)
・2000년 3월 ~ 현재 :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사무관
・2015년 3월 ~ 현재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한옥대학원 겸임교수
・관심분야 : 문화재, 성곽, 한옥
・E-Mail : ksh0707@korea.kr